

보도해명자료 (‘18.10.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 ‘2018 K-세일 페스타’ SM엔터 밀어주기”
(10.10, 아시아경제 등)

1. 기사내용

□ 세부 기사내용은 아래 산업부의 입장 부분에 함께 기술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① (보도내용) 정부가 특정 업체를 기획주관사로 선정하여, 예산을 밀어주었다는 내용

⇒ (산업부 입장) 정부가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밀어주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- 금년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, 축소된 예산내에서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, 행사 전체를 총괄할 통합 홍보 기획사(SM)를 선정하였음
- 이에 따라, 코리아세일페스타 전담기관인 대한상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홍보기획사(SM)을 선정하였음

- 1 -

< 코리아세일페스타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의 홍보 기획사(SM) 선정 과정 >

- ① (공고)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 실시(4.9월~4.20금)
- ② (접수) ‘SM C&C’ 포함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
- ③ (평가)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안사의 발표 내용을 평가(4.25 수)
- ④ (선정) ‘SM C&C’가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총괄 홍보기획사로 선정(4.25 수)
 - * 이의신청 기간(4.25 금이후 10일간)동안 이의 신청 없었음

② (보도내용) 전례없는 전야제 공연을 신설하였다는 내용

⇒ (산업부 입장) 전례없는 전야제를 신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- ‘16년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도 개막공연을 개최한 바 있음

< ‘16년 개막공연 개요 및 주요 출연진 >

- ◇ (일시·장소) ‘16.9.30(금) 18시, 영동대로
- ◇ (공연 형식) KBS ‘뮤직뱅크’의 일환으로 개최, 생방송으로 방영
- ◇ (출연가수) 원더걸스, 샤이니, 2PM, CNBLUE, SISTAR, 인피니트, 걸스데이, 달샤벳, 에이핑크, BAP, 에일리, VIXX, AOA, GOT7, 마마무, 레드벨벳, 라붐, 러블리즈, 소나무, 여자친구, 우주소녀, 아이오아이, 구구단(총 23개팀)

- 금년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‘16년도와 같이 행사의 시작을 알릴 전야제가 필요하며 ‘16년 행사의 문제점’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, 금년도 전야제를 개최하였음
 - * TV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, 방송사 정책상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적극적 홍보 제약

③ (보도내용) 연예인에게 지급된 출연료 등 기획 및 홍보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했다는 내용

⇒ (산업부 입장)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

- 2 -

- 산업부는 '18년 홍보 예산이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, 제공가능 한 범위 내에서 기획·홍보 예산의 세부내역과 연예인 및 연예인 外 관련 예산에 대해 제출하였음
- 결산이 완료된 후에는 세부내역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서기웅 과장 (044-203-4380)
김동환 사무관 (044-203-4384)